



아이들과 시로 만든 첫 가족 동화책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체험기

아이들과 AI로 만든 첫 가족 동화책,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체험기

박하나 기자

아이들과 주말에 뭐할까 고민 많으시죠? 저도 워킹맘으로서 주말마다 자녀들과 어디를 가야 할지 늘 고민이 많은데요, 이번 달에는 조금 색다르게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고 왔습니다. 바로 전국 12개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족 대상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을 다녀왔는데요.

오늘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인 두 자녀와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시와 함께 가족 동화책을 만들어본 경험을 소개해드릴게요!



©박하나 기자

“

✔ 시청자미디어센터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전국 12개 센터(부산, 광주, 강원, 대전, 인천, 서울, 울산, 경기, 충북, 세종, 경남, 대구)에서 운영 중인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직접 체험하며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말에는 가족 단위 참여가 가능한 체험 중심의 미디어 교육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물론 학부모, 어르신까지 모두 함께 참여하며 **'미디어'를 매개로 가족이 하나 되는 시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박하나 기자

“

✔ 가족과 함께 미디어 체험을 신청한 이유

초등학교 자녀의 학부모 참관 수업을 방문했을 때, 시를 활용해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수업이 흥미로웠는데요. 코딩과 데이터 기반 사고력을 키우는 다양한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능 프로그램으로 즐겨 보던 '싱크로유'도 시 가수와 실제 가수의 소름 돋는 싱크로율을 보여주며, 1%의 차이를 발견해 내는 버라이어티 뮤직 쇼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참가자의 음색을 시로 분석해 무대 연출까지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죠.

이처럼 시는 교육, 방송, 일상생활 전반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어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시 기술의 다양한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과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키우고 싶어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누리집에서 '시와 함께 쓰는 가족 동화책' 수업을 수강신청을 했습니다.



©박하나 기자

“

✓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배리어프리 공간으로 눈길 사로잡다!

지난 10월 18일 토요일 10시, 토요일가족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위해 집에서 가까운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를 찾았습니다. 1층 입구에는 시각장애인을 배려한 촉지도식 안내판을 비롯해 휠체어가 마련돼 있었는데요. 특히 건물 내부 구조 전반에 걸쳐 배리어프리 설계가 체계적으로 적용된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출입문은 자동문으로 구성됐으며, 계단과 승강기에는 점자 블록과 손잡이가 함께 설치돼 있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치돼 있었는데요. 또한 화장실을 포함한 주요 편의 시설에는 점자 표기와 국제 통합 기호가 표준화된 것은 물론 음성 안내 시스템이 함께 제공돼 시각장애인도 혼자서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로비 중앙에는 시청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애인 동시관람 체험부스**'가 설치돼 있었는데요.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해 맞춤형 관람 장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은 물론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이어폰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AR글라스(한글 자막 지원) 등 **개별 수신 장비를 통해 관람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막이나 음성 해설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장비들은 스마트앱과 연동되어 사용자가 자막과 해설을 실시간으로 전환하거나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했는데요. 이러한 체험형 부스는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문화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포용적 환경 조성**이라는 점이 돋보였습니다.

AI와 함께 쓰는 우리 가족 동화책

교육명	[토요가족프로그램] AI와 함께 쓰는 우리 가족 동화책			강사명	박세미
교육일정	10. 18.(토)	시간	10:00~13:00	회차	1차시 (3시간X1회)
교육대상	초4~6학년의 자녀, 손주들과 함께 즐거운 미디어 체험을 해보고 싶은 가족	정원	20명	교육장소	오픈교육실, 오픈라디오스 튜디오(1층)
교육내용	- 가족이 협력하여 프롬프트를 기획하고 AI를 활용해 동화책을 제작하는 교육				
회차	강의 주제 및 내용				비고
1차시	일상화 더 가까워진 AI				
	AI 동화책 감상 및 이야기 흐름 이해하기				
	우리 가족 동화 주제 선정 및 프롬프트 작성 스토리 보드 작성				
	AI를 활용한 이미지 제작과 동화책 편집 가족 동화책 전시회				
준비물	구글아이디(비밀번호 필수), 스마트폰				

※ 문의: 055-603-0631

©박하나 기자

그럼,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특별한 AI 가족 동화책 체험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

✓ AI를 똑똑하게 사용하는 방법

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였지만, 부산, 창원, 밀양 등 에서 온 4가족이 1층 오픈미디어교육실에 모였는데요. 이날 교육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우리 가족만의 동화책을 만드는 체험형 교육으로,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은 물론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습니다.

“챗지피티는 ‘대화하는 인공지능 친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챗(Chat)’은 대화를 뜻하고, ‘GPT’는 똑똑한 컴퓨터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AI를 똑똑하게 사용하려면 이름,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박세미 강사는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와 ‘챗지피티’라는 단어의 의미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또한, AI 사용법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하며,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해주었습니다.



©박하나 기자

“

✔ 우리 가족, AI 덕분에 작가가 되었어요!

첫 번째 미션은 가족이 함께 **프롬프트 기획**을 해보는 것인데요. 우리 가족은 전통적인 '신데렐라'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각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바로 '발레리나가 된 신데렐라'로 배경은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주인공은 케 이팝을 사랑하는 '엔젤 헌터스'의 일원으로 설정했는데요. 동화 속 신데렐라는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 끊임 없이 도전하는 인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때 활용된 AI 프로그램 '뤼튼'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이미지와 스토리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데요.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제공한 태블릿을 이용해 각자 주인공 캐릭터를 만들고, 다양한 머리색과 의상을 선택하며 우리 가족의 모습을 담은 동화의 첫 스크립트를 만들어 갔습니다.

매주 초등학교에서 **캔바 프로그램을 활용해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나 카드뉴스를 직접 만들어본** 경험이 있는 첫째 아이는, 그동안 쌓아온 디지털 역량을 십분 발휘해 동화책 이미지 편집과 레이아웃 배치까지 스스로 척척 해낼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요. AI가 생성한 이미지의 구도나 색감을 꼼꼼히 살피고, 등장인물의 표정이나 배경 요소 하나 하나에 의견을 내며 동화 제작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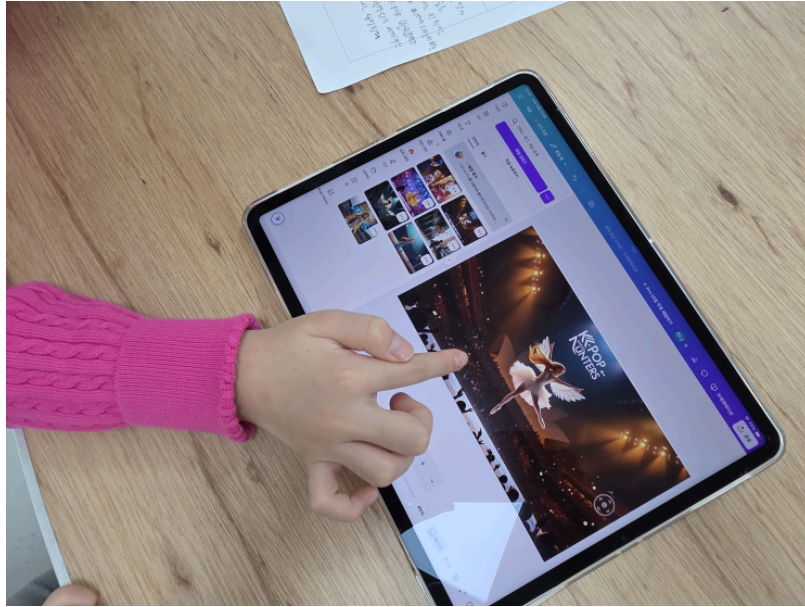
©박하나 기자

평소 학교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익힌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과 창의력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스스로 만든 장면이 동화책 속에 완성될 때마다 뿌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 과정을 즐기는 아이의 모습도 인상 깊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다른 가족들의 모습도 지켜봤는데요. 초등학교 고학년 수업답게 다른 자녀들 역시 캔바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활용하며 글쓰기와 이미지 편집에 집중한 모습이었습니다. 학부모인 저로서는 초등학생 시절, 무조건 연필을 쥐고 공책 위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던 기억이 익숙한데요.

그에 비해 요즘 아이들은 디지털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창의적으로 구성하는 과정 자체가 교육의** 한 부분이라는 점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태도 자체가 디지털네이티브인 아이들에게 사고력 훈련처럼 느껴졌습니다.

유치원생인 둘째 아이는 본인이 상상한 이야기를 독수리 타법으로 직접 입력해 보며 어엿한 창작자로 참여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캐릭터를 꾸미며 웃고 떠들다 보니 3시간의 수업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갔는데요.



©박하나 기자

“

✓ AI와 함께 만든 첫 번째 가족 동화책 전시회

수업 마지막에는 각 가족이 만든 동화책을 소개하는 **AI 동화책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흥부와 놀부, 백설공주, 신데렐라 등 고전 동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야기들이 참신하고 흥미로웠는데요. 각 가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서로 감탄했으며, 아이들도 자신이 만든 책이 화면에 등장하자 뿌듯한 표정으로 손을 들고 자연스럽게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만든 작품'을 통해 아이들과 **디지털 교감이 가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전국 12개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매달 운영하고 있는데요.

“

가족과 함께 AI 시대에 꼭 필요한 미디어 감수성과 활용 역량을 키우고 싶다면
가까운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이용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6기 국민정책기자단
박하나 기자
ladyhana05@naver.com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페이스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스타그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유튜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X(트위터)